

지역소식통

익산시 '2030 정책기획단' 출범식

익산시는 20일 오후 예술의전당 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선·후배공무원으로 구성된 정책기획단 53명과 정현을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익산시 2030 정책기획단' 출범식을 가졌다.

익산시 정책기획단은 분과 멘토 역할의 4050 선배공무원과 진취적이며 열정이 넘치는 2030 후배공무원이 내부 인적 자원 중심의 상호 학습을 통해 정책감각을 높이고 신규 정책과 사업을 제안하여 익산시정 발전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정현을 시장은 직원들과 도시락 식사를 하면서 "앞으로 9개월간 학습과 토론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가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 전문성을 보유한 공무원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래 익산의 주역인 젊은 공무원 중심으로 한 정책기획단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큰 기대감을 보였다.

이번 착수(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분과별 회의, 전체회의, 전문가 자문, 교육특강, 국내 선진지 연수, 관련 시민(단체)의견청취, 최종발표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계획이다.

정책기획단 지원부서인 기획예산과 이윤연 과장은 "성공적인 정책기획단운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공직자의 소속감과 만족감 제고는 물론 전국적으로 경쟁력 높은 인재양성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정착해 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경찰, 장애인시설 성폭력 예방 활동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가 성폭력 범죄에 취약한 장애인 성폭력 예방 활동에 발 벗고 나섰다.

일부 장애인들은 성폭력 피해를 당해도 이를 인식하지 못해 신고하지 못하는 등 지속적인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군산경찰은 20일 장애인 시설을 방문해 시설 직원과 장애인 30여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 및 개별 면담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별을 구분해 진행됐으며, 장애인 성폭력 등 범죄 예방 수칙에 대해 알기 쉽게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성폭력 인식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장애인들을 상대로 군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자체 제작한 웹툰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성폭력 범죄 피해 여부를 확인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동봉 군산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캠페인, 예방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체육시설' 군산시내 일부 포켓당구장 주류 판매

청소년 탈선 장소 전략 우려

체육시설로 분류된 당구장이 청소년 탈선 장소로 전략되고 있어 관련 법규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청소년 출입이 잦은 일부 포켓당구장은 시설물 허가사항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주류를 진열 판매하고 있으나 관련기관의 단속과 규제는 허술하기만 하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 PC방, 찜질방, 노래방 등은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당구장은 체육시설로 분류돼 미성년자 출입에 시간제한이 없어 자칫 비행 장소로 전략될 우려가 있다.

군산시 내운동의 한 포켓당구장.

밤 11시가 넘었으나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들이 삼삼오오 모여 당구를 치고 있다.

이들은 또래 학생들과 어울려 늦은 새벽까지 이곳에서 시간을 보낸다. 당구장 입구와 욕상에는 이들이 피우거나 마시고 버린 담배꽂이와 술병이 널려져 있다.

청소년 출입이 빈번한 또 다른 포켓당구장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주류를 버젓이 진열 판매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주류는 청소년 유해약물로 구분되며, 동법 제16조 2

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한 진시 및 진열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잘못된 업소들은 영리를 위해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알고 도 이를 눈 감거나 외면하고, 나아가 이를 이용하는 등 청소년 탈선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당구장에 대한 허가 및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고, 관

련법규 개정을 통해 청소년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청소년상담 전문가는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당구장도 청소년 야간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특히 청소년 출입이 잦은 포켓당구장에서의 담배, 주류 판매 등을 막아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청소년 출입이 빈번한 당구장 내에 진열된 주류들.

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한 진시 및 진열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잘못된 업소들은 영리를 위해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알고 도 이를 눈 감거나 외면하고, 나아가 이를 이용하는 등 청소년 탈선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당구장에 대한 허가 및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고, 관

련법규 개정을 통해 청소년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청소년상담 전문가는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당구장도 청소년 야간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특히 청소년 출입이 잦은 포켓당구장에서의 담배, 주류 판매 등을 막아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해경, '포켓몬 GO 안전관리 대책' 수립

오프라인 사고예방 홍보 등 선제적 대응 나서

증강현실 게임인 '포켓몬 GO'가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해양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해경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20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안전펜스가 없는 바닷가, 항·포구, 선착장을 중심으로 순찰 강화와 구조팀 배치"를 담은 이른바 '포켓몬 GO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군산지역은 포켓몬 GO의 성지로 불리고 있다. 실제, 포켓몬 GO 게임에 내항 진포해양레미콘공원과 비응 선착장, 새만금방조제에서 희귀 포켓몬이 출몰하고, 다른 이용자와 대결이

가능한 포켓몬이 개설돼 있다. 하지만 이 지역들은 바다와 인접한 곳으로 이용객들이 게임에 몰두해 주변을 걸다가 자칫 실족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해경은 순찰강화, 오프라인 사고예방 홍보, 비상구조 대응팀 배치, 안전시설물 점검 등 안전관리에 돌입했다.

채광철 군산해경서장은 "실제 포켓몬GO 게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양사고의 개연성도 높은 만큼 선제적 대응을 통해 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현안사업 추진 예산반영 요청

정현을 익산시장은 중앙정부 및 국회가 열쇠를 쥐고 있는 익산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9일 조배숙 국회의원을 어양동 의원사무실에서 만나 적극적인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협조를 구한 지역현안 사업은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육성사업, 왕궁리유적 ICT융합 체험형 가상복합박물관 조성, 하수처리장 감량사업, 익산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등으로 정현을 익산시장은 시의 현안사

업의 해결과 사업추진을 위해 큰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충청권보다 10년이나 늦게 건설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광택~부여~익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동시착공 당위성과 제19대 대선공약으로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사업 등 7개 사업의 반영을 요구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원광대, 2016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

원광대학교 2016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신명국 원광학원 이사장과 김도중 총장, 금기창 총동문회장을 비롯해 교직원, 학생, 가족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오전 10시 30분 교내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박사 83명, 석사 211명, 학사 2,952명 등 총 3,246명에게 학위가 수여된 이날 졸업식에서는 복지보건대학 이진원씨가 이사장상을 받고, 평균 평점 4.5 만점에 4.49점을 기록한 복지보건대학 이진원씨가 학업 최우등으로 총장상을 받았으며, 경영학부 심우현, 영어영문학과 이현영, 정보통신공학과 이원규, 간호학과 정아연씨가 각각 삼

대표를 지낸 스포츠산업복지학과 김민성씨가 총장공로상을 받고, 경영학부 윤석봉씨를 비롯한 6명에게 금기창 총동문회장으로부터 공로상이 전달됐다.

또한, 원예학과 신소양씨와 2017년 치과의사 국가고시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한 치의학과 한아름씨가 각각 농촌진흥청총장상과 국가시험원장상을 받았다.

한일, 사회봉사 심화활동, 덕성훈련 심화과정, 선·효행, 나눔실천 등 도덕적 실천덕목을 수행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내 도의실천인증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의를 거쳐 통과시킨 37명에게는 '도의실천인증서'가 전달되기도 했다.

김도중 총장은 훈사를 통해 "오늘 받은 학위는 단순히 학업을 마쳤다는 증명이나 학문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과 배움을 사회에 실천하겠다는 각오"라며, "이제 더 큰 무대로 올라가 꿈을 실현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80명이 석사학위를, 21명이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특히 김관영 국회의원은 지역사회와 지역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법학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앞서 지난 17일 군장대학교는 학생회에서 학위수여식을 갖고 702명의 전문학사를 배출했다.

군장대학교는 제1회 254명의 첫 전문학사를 배출을 시작으로, 개교22년 동안 총 2만18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대·군장대 학위수여식

군산시 관내 군산대와 군장대가 학위 수여식을 가졌다.

군산대학교는 20일 아카데미홀에서 '2016학년도 전기학위 수여식'을 개최했다.

학위수여식에는 내의군 총장을 비롯한 교내 주요 보직자, 군산대학교 총동문회장, 군산시장, 군산시의회의장, 군산상공회의소회장, 한국산업단지공단전북본부장, 군산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장, 학부보 등이 참석했다.

군산대는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 1502명이 학사학위를 수여받았고,

원광대학교 기획처 기획평가과 최경식·정운영 주무관, 교육부장관 표창

원광대학교 기획처 기획평가과 최경식·정운영 주무관이 대학 자체평가 및 평가인증과 대학정보공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각각 인정받아 교육부장관 표창장을 받았다.

최경식 주무관은 교육부에서 대학 자체평가 및 평가·인증제 담당 유공자를 발굴하고, 시상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심사를 거쳐 선발한 최종 13명에 포함됐으며, 정운영 주무관은 대학정보공시를 활용한 업무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학정보공시 발전에 기여

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교육통계 및 정보공시 관련 업무 유공대상자로 선정됐다.

최경식·정운영 주무관은 "많이 부족하지만, 더욱더 노력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대학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기획처장 배종환 교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A large promotional banner for Gunsan City. It features a stylized illustration of a city with a lighthouse and a girl holding a pencil. The text includes '동북아경제수심 명품도시 군산' (Gunsan, a premium city with a deep economic heart in Northeast Asia) and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Gunsan, a city where children and citizens are all happy!). Logos for DreamHub GUNSAN and GUNSAN CITY are visible in the top right corner.